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 1.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도규상입니다.

기업금융 현황 및 리스크 요인 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백신접종이 시작되어  
국민들께서는 일상으로의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해 어려움이  
여전히 진행중에 있으며,

여기에 더해서 코로나 충격으로부터 '회복' 되더라도  
새롭게 바뀐 경제·산업구조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팬더믹(pandemic) 초기만 하더라도  
정책의 초점이 신속하고 빠르게  
응급상황을 극복하는 것이었다면

현재는 기업들에게  
'회복'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코로나19가 앞당긴  
산업구조 변화에 '적응'하고 '선도'할 수 있도록  
선제적 재도약 노력을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코로나19 2년차의 기업금융 정책

코로나19 팬더믹은 그 자체의 충격외에  
글로벌 산업구조에 급격한 변화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비대면·디지털 경제로의 이행이  
보다 가속화되고 있으며,  
제조업의 서비스화, 서비스 산업의 플랫폼화 등의 확산으로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도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산업구조 변화는  
상대적으로 적응이 용이한 대기업보다는  
중소·중견기업에 보다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어느새 다가와 있으며  
지금부터라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코로나19 극복 이후에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작년 한해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기업들을  
적극 지원한 한 해\*였다면

\* '20년중 은행권 기업대출(원화) 잔액 증가율은 약 12.4%(韓銀, 非외감기업 포함)

올해는 기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재연장 등  
금융지원을 지속해 나가면서  
중소·중견기업들이 산업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증가한 기업부채가  
우리 경제의 잠재적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과 연계하여  
면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3. 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금융 혁신 플랫폼 구축

이러한 경제·산업구조 변화에 맞추어  
금융권의 자금공급 방향과 방식도  
근본적인 체질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존 금융권에서 사용하는 산업분류체계로는  
급변하는 산업·기술변화와 융복합 트렌드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금융권의 산업동향과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하여  
사업재편이나 新사업 분야진출 등  
기업의 혁신노력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는데  
한계와 제약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에서는  
‘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금융 플랫폼’ 구축을 통해  
기업의 선제적 재도약 노력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주춧돌을 만들겠습니다.

우선, 신산업 기술변화 등  
경제·산업 구조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여  
금융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 산업분류와  
기업금융분류 기준부터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라  
자금공급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산업업황에 대한 데이터 등을 수집·분석하여  
실제 산업현장 호흡과 연동된  
살아있는 기업금융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기업금융 플랫폼을 통해  
금융당국은 ❶기업의 혁신적 사업재편과  
선제적 재도약 노력을 지원하겠습니다.

❷기술변화 등 산업 생태계 및 구조변화에 대한  
금융권의 이해를 한층 높이고  
혁신분야에 적극적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디지털·그린분야를 통한  
경제대전환 노력에 맞추어  
혁신기업을 발굴하고  
적극적 자금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중요한 토대도 마련하겠습니다.

적극적 자금지원과 함께  
산업동향등에 엄밀한 분석을 통해  
특정분야에 자금이 쏠리지 않도록 하는 등  
❸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5. 마무리 말씀

진시황제가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후  
통일국가의 근간을 만들기 위해  
처음 시행한 정책 중 하나가  
전국의 토지와 물자생산 등을  
파악하기 위한 도량형 통일  
즉, 통계 기준 정비입니다.

제대로 된 산업분류와 기업금융분류에  
기초한 플랫폼은  
기업금융정책 수립의 토대가 되고  
기업금융의 산업간 효율적 자원배분 기능을 제고하는  
시발점입니다.

산업현장과 함께할 수 있는  
살아있는 기업금융 플랫폼 구축에  
금융권과 관계부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